

나노라 덴리시 · 사쿠라이시

제 13호

天理市 · 桜井市

- 총본산 하세데라 절(總本山長谷寺)1 p
- 말차 · 식사 하세지(長谷路)1-2 p
- 덴리역전 광장 고후훈(CoFuFun)2 p
- 야마노베의 길(야마노베노미치)3-4 p





한가로이 거닐며 동네의 매력을 발견하는 여행

나라현 북부에 위치한 덴리시와 사쿠라이시는 나라시에서 전철로 찾아가기 편리하며 역에서 천천히 걸으며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킹을 좋아하는 분이나 동네를 한가로이 산책하고 싶은 분, 여행 중에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사쿠라이시에 있는 일년 내내 다양한 꽃을 즐길 수 있는 꽃의 사찰 '총본산 하세데라 절 (總本山長谷寺)' 과, 유서 깊은 유형문화재 가옥에서 차와 식사를 즐기며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세지 (長谷路), 덴리역 앞의 복합시설 '덴리역전 광장 고후훈 (CoFuFun)' 을 소개합니다.

총본산 하세데라 절 (總本山長谷寺)

- 연중 다양한 꽃을 즐길 수 있는 꽃의 사찰

오랜 역사를 가진 총본산 하세데라는 연중 다양한 꽃을 즐길 수 있는 사찰로, 많은 사람들이 참배와 꽃구경을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세데라까지 긴테쓰 하세데라역에서 참배로를 따라 걸기를 20 여분. 눈 앞에 보이는 것은 만개한 벚꽃이었습니다.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하세데라는 봄의 상쾌함과 함께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합니다.

하세데라는 '꽃의 사찰' 로도 불리며 일년 내내 다양한 꽃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모란, 철쭉, 여름에는 수국, 겨울에는 단풍, 겨울에서 봄에 걸쳐 매화와 동백 등 경내를 물들이는 꽃들로 계절별로 다른 모습의 하세데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모란이 한창일 시기에 하세데라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하세데라는 단풍이 물드는 계절에도 그 아름다움이 한층 더합니다. 제가 하세데라를 찾아가셨을 때는 봄이어서 단풍을 볼 수가 없었지만, 작년 가을에 하세데라를 방문한 베로니크 프랑스 국제교류원이 단풍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경내를 감싸는 듯 물든 단풍이 하세데라를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로 만듭니다. 저는 아직 하세데라의 단풍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도 충분히 그 아름다움이 전해져 옵니다. 올가을에는 하세데라를 물들이는 단풍을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을 감상하며 나라의 오랜 역사를 산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주소 : 나라현 사쿠라이시 하세 731-1
(〒633-0112 奈良県桜井市初瀬 731-1)
- 오시는 길 : 긴테쓰 하세데라역에서 도보 20 분
- 홈페이지 : 총본산 하세데라 <https://www.hasedera.or.jp/>



단풍철의 하세데라 (사진 베로니크 국제교류원 제공)

말차·식사 '하세지 (長谷路)'

- 유서 깊은 유형문화재 가옥에서 즐기는 한때

하세데라로 향하는 참배로에는 유서 깊은 유형문화재 가옥을 활용한 가게가 있습니다. '하세지' 는 현관 앞에서부터 가옥의 오랜 역사가 느껴집니다. 현관에서 안으로 한 발 내딛자 눈앞에는 멋진 정원이 펼쳐집니다.

안내해 주신 분은 이번 취재를 흔쾌히 승낙해 주신 야마다 씨입니다. 다이쇼 시대 중기에 지어진 이 민가는, 2000 년에 안채 (本屋), 다실 (茶屋), 문 (門), 별채, 창고 (土蔵), 담장 (塀) 의 총 6 개 동이 문화청 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야마다 씨에 의하면 옛날에 이 주변은 '이세 가도 (伊勢街道)' 라고 하여 이세신궁에 참배를 하러 가는 참배로의 외길이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참배를 하러 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에도시대 말기 당시부터 술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하세지 바로 옆의 '야마다 주점 (山田酒店)' 에서는 하세의 토속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꽃으로 유명한 하세데라를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서 가계는 연중 손님으로 북적이는데, 특히 모란이 피는 시기인 봄과 단풍이 물드는 가을에는 일본인 손님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단체여행객,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개인여행객 등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2 층에는 유료로 공개하고 있는 '판화 창고관 (版画土蔵館)' 이 있는데 야마다 씨가 특별히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판화관에는 무나카타 시코 (棟方志功), 다니나카 야스노리 (谷中安規), 오노 다카시 (大野隆司), 미야자키 게이스케 (宮崎敬介) 등 유명한 판화가의 작품과 책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판화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섬세한 판화를 보니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 판화만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손님도 있다고 하니, 차와 식사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마다 씨는 여러 이야기를 해주신 후 말차와 화과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평소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오래된 민가의 한적한 다다미방에서 보내는 한때는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여행에 실 곳이 되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말차는 여행을 더욱 풍요롭고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세데라 참배길의 유서 깊은 고민가에서 느긋한 한때를 보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주소 : 나라현 사쿠라이시 하세 857
(〒 633-0112 奈良県桜井市初瀬 857)
- 오시는 길 : 나라현 사쿠라이시 하세 857
- 영업시간 : 11:00 ~ 16:00
- 정기휴일 : 부정기 (4 월 · 5 월 · 11 월은 무휴)
- 홈페이지 : 하세지 (長谷路)



<http://www5.kcn.ne.jp/~haseji21/>

<http://nara-haseji.com/>



덴리역전 광장 고후훈 (CoFuFun)

- 역 앞에서 즐기는 모임의 광장

JR · 긴테쓰 덴리역 바로 앞에는 복합시설인 '덴리역전 광장 고후훈' 이 있습니다. 덴리역을 방문했을 때 부담없이 들러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고후훈은 덴리시에 있는 수많은 고분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광장입니다. 야외 무대에서는 다양한 아티스트의 공연과 기업의 홍보활동, 문화 알림 등을 하고 있으며, 옥내에서는 영어 교실, 요가 교실, 수공예 교실 등이 열리며, 역전 광장에서는 덴리시와 나라현산의 신선한 채소와 특산품을 판매하는 '고후훈 마르세' 장터를 여는 등 고후훈을 활용하여 사람과 사람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동네를 활기차고 밝게 만드는 등 마을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포 & 라운지 고후훈' 에는 관광 안내소와 식당 'Park Side Kitchen', 자전거 판매와 수리, 렌탈을 하는 전문점이 있습니다. 관광 안내소에서는 나라 관광에 관한 책자와 서적 등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취재차 고후훈을 방문한 것이 때마침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Park Side Kitchen' 에서 점심메뉴를 주문하였습니다. 신선한 나라현산 채소로 만든 몸에 좋은 음식이 매우 맛있었습니다.



'고후훈 샵' 에서는 젓가락 등의 목제품과 양말, 고분을 모티브로 한 자석과 소품, 덴리시와 나라현산 채소, 차 등 덴리시와 나라현 내에서 만든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게 매니저분께서 말씀 하시길, 덴리산이 약 70%로 덴리시내의 양호학교와 복지시설에서 만든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젓가락과 십이지를 모티브로 한 장식물 등이 인기가 있다고 하니 고후훈 샵에 들러서 기념품을 구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들른 역 앞 모임의 공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주소 : 나라현 덴리시 가와하라조초 803
(〒 632-0016 奈良県天理市川原城町 803)
- 오시는 길 : JR · 긴테쓰 덴리시에서 바로
- 홈페이지 : 덴리역전 광장 고후훈 <https://cofufun.com/>



만엽집의 시가와 함께 거니는 야마노베의 길

작년에 약 30년간에 걸친 헤이세이(平成) 시대가 끝나고 5월부터 레이와(令和) 시대가 막을 열었습니다. '레이와(令和)'는 '아름다운 조화(프랑스어로 Belle Harmonie)'라는 의미로, 출전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만엽집(万葉集;만요슈)입니다. 원호가 일본의 고전에서 인용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며, 지금까지 일본 원호의 출전은 모두 중국의 고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만엽집은 천황에서 서민까지 여러 사람들이 읊은 일본 시가(和歌;와카) 4500여수가 담겨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입니다.

전체 2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엽집이 언제 시가집으로 엮인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나라시대(710~794년) 말기에 성립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당시 현재의 나라(奈良)는 야마토(大和)라고 불리며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만엽집 중에서 나라의 지명을 읊은 노래가 약 900수에 달해, 나라는 만엽집의 고장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이번에는 만엽집에서 시인이 읊은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거닐면서 만엽집의 노래 3수를 소개하고 일본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야마노베의 길(야마노베노미치)은 사쿠라이시에서 나라시까지 이어지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길로, 만엽집의 시인이 읊은 지명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이 깃든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미와산(三輪山)이 있는 사쿠라이시에서 덴리시까지의 약 16km 구간을 걸었습니다.



나라분지 전경

미와산의 큰 나무와 풀 등 자연 모두가 신과 같이 여겨져 오미와 신사에는 본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내에는 나라분지를 조망할 수 있는 오미와노모리 전망대가 있어, 특히 벚꽃이 피는 시기에 인기가 있는 장소입니다. 또, 전망대에서는 야마토 삼산(大和三山;야마토산잔)을 볼 수 있습니다. 야마토 삼산은 아마노카구야마(天香久山), 우네비야마(畝傍山), 미미나시아마(耳成山)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가의 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엽집에서도 읊어진 곳이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かぐ山は畝火(うねび)ををしと耳梨(みみなし)と相(あひ)あらず
ひき神代(かみよ)よりかくにあるらしいにしへもしかにあれこそう
つせみもつまをあらずふらしき」

万葉集1-13

'가구야마는 우네비야마를 남자답다하여 미미나시아마와 다투었네. 옛부터 그랬기에 지금도 사랑하는 이를 두고 다투다네.'

만엽집1-13

이 시는 일본의 제38대 천황인 덴지(天智) 천황(626~671년)이 읊은 것입니다.

덴지 천황과 그의 남동생인 덴무(天武) 천황이 만엽집 중에서 13수의 시를 읊은 '누카타노 오키미(額田王)'를 두고 다투었다고 하는데, 이 시는 그 삼각관계를 그린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덴지 천황은 다이카 개신에 공헌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천황을 중심으로한 정치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다이카'는 일본 최초의 원호이기도 합니다.



사쿠라이역에서 15분정도 걸으면 '불교전래의 땅'이라고 적힌 비석이 있는 야마노베의 길의 시작점에 도착합니다. 고대에 이 부근은 오사카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배의 종착점으로, 몇 군데 고도의 교차점이기도 하여 번성했던 곳입니다.

해외 사절도 이곳으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6세기에는 백제 성왕의 사절이 불상과 경전을 전해, 신들을 신앙하던 일본에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오미와 신사(大神神社)로 향합니다. 오미와 신사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중 하나로 미와산의 신 '오모노누시노오키미(大物主大神)'를 모시는 신사입니다. '오모노누시노오키미'는 국가를 세우는 신으로 받아들여져, 제 10대 천황인 스진(崇神) 천황(생몰년 불명) 시대에 역병이 유행했을 때에는 역병을 가라앉혔다고 전해집니다.



누카타노 오키미 노래비

「うま酒 三輪の山 あおによし 奈良の山の山の間にかく
るまでに 道のくまいつもるまでに つばらにも 見つつ行かむ
をししばも 見さけむ山を 情なく 雲の かくさふべしや」

万葉集1-17

‘그리운 미와산이 나라의 산들 사이로 가려지기까지, 수많은
길이 겹겹이 포개어지기까지 차근히 바라보고 싶은 것을, 몇
번이고 바라보고 싶은 산을 구름이 무심하게 가려도 될까.’

만엽집1-17

오미와 신사를 나와 발로 둘러싸인 운치있는 길을 걸으면 이
시가 새겨져 있는 비석(노래비)이 보입니다.

덴지 천황은 667년에 아스카(현재 나라현 아스카무라)에서 오
우미 오쓰노미야(현재 시가현 오쓰시)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이
시는 누카타노 오키미가 새로운 도읍으로 옮겨갈 때 읍은 시라
고 합니다. 노래비가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원뿔형의 미와산의
풍경은 매우 아름다워, 나라를 그리워하는 누카타노 오키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또, 고대 사람들이 미와산에 애정을 가지
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카타노 오키미의 노래비가 있는 곳에서 조금 걸으면 스진
천황릉에 도착합니다. 연못에 둘러싸인 자연의 언덕처럼 보이
지만 사실은 무덤입니다. 이와 같이 큰 규모의 무덤을 고분이라
고 합니다. (황족의 무덤은 능묘라고 합니다.) 거대한 묘를 만들
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분은 노동력의 집
중과 대규모의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의 발생을 보여줍니
다. 고분 주변은 하니와(옛날 무덤 주위에 묻어 두던 토기로 만
든 인형이나 동물상)가 놓여있으며, 고분 안에는 무기와 장신구
등 공예품이 있어 유력자의 무덤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
분시대는 스진 천황릉과 같이 전방후원분이 출현한 3세기 후반
에서 7세기 말엽으로, 수장을 중심으로한 정치권력이 성립한 시
대로 여겨집니다. 스진 천황은 원시적인 국가를 통일하고 미와
산록을 중심으로한 정권을 확립하였다고 합니다. 실재 인물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국내통치를 진전시킨 인물로, 진무
(神武) 천황과 마찬가지로 하스쿠니시라스스메라미코토(御肇國
天皇; 어조국천황)로 칭해져 제 1대 천황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스진 천황릉

전원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길을 걷다보니 이번에는 마지막으
로 소개할 노래비가 보입니다.

「衾道(ふすまち)を 引手(ひきて)の山(やま)に 妹(いも)を置
きて山路(やまち)を行(い)けば 生(い)けりともなし」

万葉集2-212

‘사랑하는 이를 산에 두고 산길을 걸어가니 살아도 산 것같지
않구나.’

만엽집2-212

이것은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柿本人麻呂)(생년 미상~708
년?)가 읍은 시입니다.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는 일본 문학의 대표적인 시인 중 하나
로 가성(歌聖)와카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만엽집에는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의 와카가 약 450수 수록되
어 있습니다. 이 와카는 산에 죽은 아내를 묻고 나서 야마노베의
길을 걸어 돌아가면서 읍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
은 후의 심정은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시를 보고 일본 고대의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의
심정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 노래비

이 노래비를 뒤로하고 산길을 따라 쪽 걷다보면 드디어 하
이킹 코스의 도착점인 이소노카미 신궁(石上神宮)이 보입니다.

이소노카미 신궁에 들어가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닭들이 몇
마리나 있어 놀랐습니다. 닭은 이소노카미 신궁에서 ‘신의 사자’
로 여겨져 받들고 있습니다. 또, 이소노카미 신궁은 일본에서 가
장 오래된 신사 중 하나로 중요 유물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야마노베의 길은 나라시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덴리역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이소노카미 신궁에서 덴리역까지
는 도보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걷는 중에 천리교(덴리교)의 본
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 향할 때 음식점과 채소가게,
토산품점 등이 있는 덴리의 중심 상점가를 지나는 것을 추천합
니다. 천리교 관련 가게도 있어 흥취가 있는 상점가입니다.

나라는 일본이 시작된 땅이라고도 불립니다. 야마노베의 길
을 걸음으로써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를 찾아가보고 고대
사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엽집의 와카를 읽으며 예로부
터 변치 않는 나라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하고 고대인
들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
다. 또, 무인 판매기에서는 맛있는 채소
와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걸을 때 브로
콜리와 데코폰, 핫사쿠와 같은 감귤을 많
이 산 탓에 배낭이 무거워져 힘들었지만
집에 와서 신선하고 맛있는 채소와 과일
을 먹으며 하이킹의 피곤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싶은 분
은 야마노베의 길을 걸어 보는 것은 어
떨까요.

드니라로크 베로니크
(Denis-Laroque Véronique)

나노라 「奈の良」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나라현 국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교류원입니다.

나라현과 해외 각국과의 교류를 진전시키는 가교가 되기 위해 매일 국제교류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노라"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나라현의 매력을 현민 여러분과 해외에서 오신 방문객들께 소개하기 위해 저희들이 나라현에서 찾은 매력과 흥미로운 곳을 직접 취재하여 기사로 쓴 것입니다. 이 정보지를 통해 나라현에 흥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외국인이 느끼는 나라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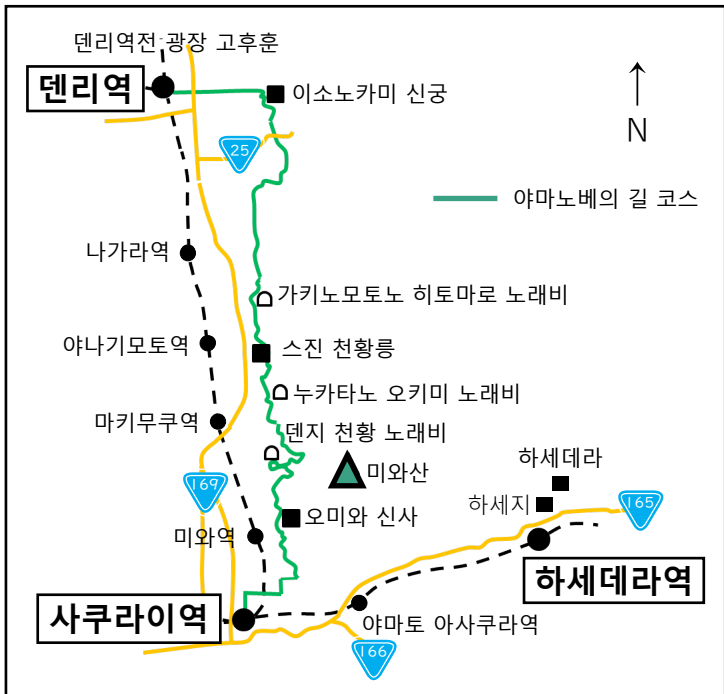
남현정 (Hyunjung Nam) (사진 왼쪽)

이번 여행지인 덴리시와 사쿠라이시는 역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편리한 곳입니다. 특히 하세데라로 향하는 참배길과 야마노베노미치 (야마노베의 길) 의 하이킹을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접근성이 좋은 것도 여행의 매력 중 한가지일 것입니다. 계절의 꽃을 즐기거나 특별한 공간에서 차를 마시며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꼭 이 동네의 매력을 느껴 보세요!

드니라로크 베로니크 (Denis-Laroque Véronique) (사진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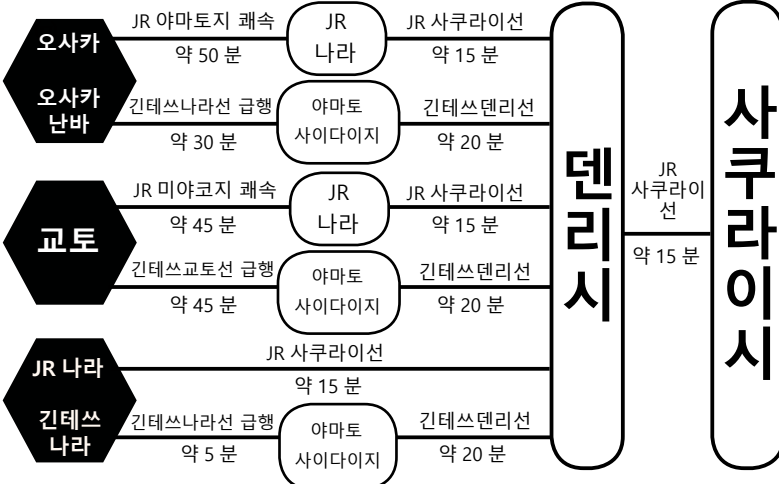
야마노베의 길에는 역사가 긴 신사와 절이 많이 남아있어 고대부터 변하지 않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역사를 더욱 알게 되었고 나라현의 아름다운 자연도 느낄 수 있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일본을 느껴보고 싶은 분에게는 사쿠라이시에서 덴리시까지의 야마노베의 길을 걸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덴리시 · 사쿠라이시



오시는길

전철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오사카에서 약 1 시간
교토에서 약 1 시간 20 분 } 덴리까지
나라에서 약 30 분

덴리에서 사쿠라이까지 약 20 분

Special Thanks

이번 취재에 협력 해주신 총본산 하세데라, 하세지, 덴리시청, 덴리시, 사쿠라이시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노라

발행처 :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발행 : 2020년 6월
본지에 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곳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8501) 나라시 노보리오지초 30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 630-8501 奈良市登大路町 30 奈良県知事公室国際課
TEL : 0742-27-8477
FAX : 0742-22-1260